Commentary

Date 2026.09.23 Analyst 이지선

2026 미국 중간선거: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

미국 중간선거가 약 6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은 11월 3일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선출한다.

주식시장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다.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얼마나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는지, 의회가 어디까지 이를 제약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공화당은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 차이는 크지 않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이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상원은 여전히 경합도가 높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민주당 하원 + 공화당 상원'의 분점정부 뿐 아니라 민주당의 양원 장악까지 시나리오로 점검하고 있다.

1. 중간선거는 무엇인가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그 중간인 2년째에 실시되는 의회 선거를 일반적으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부른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상대해야 하는 국회가 바뀔 수 있는 선거"

미국 하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435석 전체가 다시 선출된다. 상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전체 100석 가운데 약 3분의 1씩 나누어 선거를 치른다. 올해는 정규 선거와 특별선거를 합쳐 35석이 대상이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크게 세 가지 의회 구도가 가능하다.

-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계속 장악 (현재 상태)
-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오고 공화당은 상원을 유지하는 분점정부 (유력 시나리오)
-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 (고려해 볼 시나리오)

2. 중간선거가 왜 중요한가

중간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 동안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세금,재정,국방,이민 등 주요 정책을 의회를 통해 추진하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하원이라도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분점정부가 될 경우 향후 예산 협상과 부채한도 협상, 셧다운(shutdown)등의 상황이 지금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소이다.

상원까지 바뀌면 의미가 더 커진다. 상원은 연방판사, 대법관, 연준을 포함한 주요 행정부 인사의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0대50이면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려면 51석이 필요하다 .(현재 실질적 당파구도는 공화당(무소속 포함) 53석, 민주당 47석)

컨센서스는 이번 중간선거가 미국의 관세, 외교정책, 규제, 이민 등 시장에 중요한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민주당 의회가 관세에 대한 조사와 견제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넘어 정책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즉,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책을 없애는 선거라기보다, 앞으로 2년간 트럼프가 정책을 얼마나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3.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1)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생활비

현재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 그 중에서도 생활비와 물가다. 현지 한 여론조사에서 (출처: Pew Research)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주제 가운데 경제 관련 문제가 29%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생활비 및 구매력 문제가 15%로 가장 컸다.

9월 21일 발표된 Reuters/Ipsos 조사에 따르면 최근 상황은 집권당에 더 부담스럽게 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였고, 생활비 문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7%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의회선거 지지율은 공화당보다 8%포인트 높았다. 생활비가 공화당에게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2) 이란 전쟁과 유가

2026년에는 외교정책 역시 경제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및 전쟁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34%였으며(출처: Reuters/Ipsos 조사), 장기화된 충돌과 높은 연료가격이 유권자의 생활비 부담과 연결되고 있다.

3) 이민과 치안

경제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이민과 치안이다.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이민과 치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Pew Research)

4) AI 와 데이터센터: 새롭게 커지는 정치 이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 가운데 하나가 AI 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AI 정책에서 어느 정당도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출처: Pew Research) 또한, 9월 Reuters/Ipsos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3%가 AI 기업들이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9월 16일 하원은 Ratepayer Protection Act 를 417대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초당적 정치 이슈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공화당은 원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빠르게 하는 대신, 데이터센터 개발사(하이퍼스케일러)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초당적 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AI 인프라 벨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에게 비용 증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헬스케어와 정부지출

헬스케어 역시 주요 선거 쟁점이다. 민주당은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유권자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출처: Pew Research) 동시에 Medicaid 와 사회복지 지출 감축 여부가 차기 의회에서 중요한 재정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제약, 보험, 의료서비스 기업은 약가, 보험지급, Medicaid, 정부 조사와 규제 차원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4. 시나리오별 금융시장 영향

시나리오 1)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모두 유지

정책적으로 현재와 가장 연속성이 높은 조합이다. 추가 감세와 정부지출 정책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미 큰 재정적자와 좁은 의석 차 때문에 대규모 재정부양의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관세정책에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주식시장: 정책의 연속성이 높다는 점은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 채권시장: 감세, 재정 지출이 추가될 경우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이 장기금리의 하락을 제한 요소
- 산업: 금융 규제완화와 전통에너지 정책은 현재 방향이 이어질 가능성. 반대로 재생에너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 지속. AI 에서는 연방정부가 주(州)별 규제보다 연방 차원의 규칙을 우선하려는 방향이 지속 (즉 민주당보다는 다소 완화)

시나리오 2) 민주당 하원 + 공화당 상원: 분점정부

예산안, 부채한도 협상, 셧다운 등, 2027년 이후 재정협상 과정이 시장의 반복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세제 혹은 규제 변화가 어려워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분점정부 하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분야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방산, AI 기술, 반도체, 사이버보안 등은 중 중국과의 기술경쟁 때문에 정책적 중요성이 유지될 수 있어 보인다. 공화당 정책 지지의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헬스케어, 사모펀드, 디지털자산, 쪽은 의회 조사가 강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 주식시장: 산업별 차별화 예상
- 채권시장: 정부폐쇄와 부채한도 협상 때 국채시장 변동성 높아질 전망
- 산업: 미중 기술경쟁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AI 관련 기업 조사와 데이터센터 전력비용 규제가 강화 가능성 존재

시나리오 3)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

이 경우 의회의 행정부 견제력은 가장 강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대로 남는다. 민주당 의회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복구하거나 사회복지 감축을 되돌리거나 관세정책을 변경하려 해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상당수 법안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전면적인 반전을 의미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행정부 인사, 연방판사/대법원 인준, 조사, 청문회 등 노이즈 발생은 많아질 수 있다.

- 주식시장: 정책 교착과 규제 불확실성
- 채권시장: 협상 노이즈는 불확실성
- 산업: 공화당 정책 지지 받은 산업에 대한 조사와 규제 논의가 불확실성

5. 투자자에게 시사점은

첫째, 투자자는 특히 하원 권력 변화가 가져올 분점정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책 교착을 중요한 시나리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미국 현지 전국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크게 이동했고, 하원은 소수 경합지역만 움직여도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구조다. 상원은 개별 주 선거의 영향이 더 커 전국 여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중간선거가 결과가 미중 반도체 갈등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관세와 중국 정책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여전히 크다고 봐야 한다.

셋째,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한 AI 주제의 핵심은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전력망/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이는 향후 AI 인프라 기업의 투자비와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 이후에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 강한 패턴을 보여왔다. 1970년 이후 중간선거가 있던 해 S&P 500 평균 수익률은 +7.5%로 전체 평균 +12.4%보다 낮았다. 그러나 선거 이후 6개월 평균 수익률은 +14.1%였다.

6. 향후 핵심 일정

- 10월 6~8일 주요 상원 경합주 TV 토론: 아이오와 10/7, 메인 및 미시간 10/8. 세 곳 모두 현재 상원 경합으로 분류. 첫 번째 중요한 여론 변곡 구간
- 10월 13일 전후 메인 추가 토론, 텍사스 토론 일정 등: 상원 경합주 후보 비교가 집중되는 시기
- 10월 21일 미시간 상원 2차 토론: 미시간은 민주당이 현재 의석 보유하나 의원 은퇴로 초박빙 경합지. 상원 전체 구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역
- 10월 22일 연방선거위원회 선거 전 자금보고: 10월 14일까지의 선거자금이 공개됨. 각 당이 어디에 자금을 집중하는지가 실제 내부 판세의 간접 신호가 될 수 있음
- 10월 마지막 7~10일 최종 여론조사 + 조기투표 확대: 전국 평균보다 하원 경합지 (37곳 내외)과 상원 경합지 (7곳 내외)의 움직임이 중요

- 11월 3일 중간선거: 시차로 인해 한국 시간 기준 11월 4일(수) 오전부터 주 개표 현황이 유입되며,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당일 아침 한국 증시 및 아시아 금융시장이 1차적으로 반응 예상
- 12월 1일 조지아 결선 가능일 (조건부): 조지아주 선거법 상에서 어느 후보도 50%를 넘지 못하면 12월 1일 최종 결선. 현재는 민주당 의석. 상원이 초박빙일 경우 최종 다수당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 12월 1일까지 금융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장될 수 있음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 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